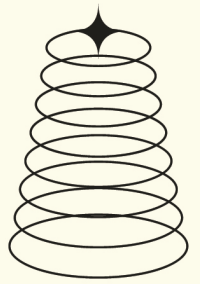


2023년 11,12월

코칭뉴스레터

Coaching News Letter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GO Thrive Coaching News Letter

GO Thrive Coaching News Letter

제54호

November

December

2023 / 11, 12월

CONTENTS

04

코칭 국제대표의 생각

당신은 비커밍 코치입니까? 메이킹 코치입니까?

07

코칭연구소 소식

2023년 11~12월 코칭 사역 중요한 NEWS

12

코칭세미나 평가 인터뷰

정희찬, 서춘화, 전훈재 선교사

GO THRIVE COACHING Renewing Pastor Reviving Church

은 교회의 건강을 진단, 평가, 처방하고,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세워 코칭을 통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사역은 미국에서 1997년도에 시작하여 20년간 발전해오면서 지금까지 다섯 권의 관련 서적을 발행하였고, 1,000교회, 2,000명의 목회자, 그리고 1,500명의 평신도를 진단, 평가, 처방해왔습니다. GO Thrive Coaching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자 갱신(renewing), 교회 부흥(reviving), 지역사회 변화(refreshing)를 5대(5 generation)에 걸쳐서 실현하는 “3R5G시대 : 2030에 3,100명의 코치 세우기”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역은 미국, 캐나다, 한국, C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유럽에서 목회 코칭, 교회리더 평신도 코칭, 건강진단처방 전략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 코칭, 및 구역장 코칭 등으로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

제 1회 GO코칭
평신도축제컨퍼런스 설문 결과

31

2023년 코칭
건강한 코치 상패 증정
- 윤보열 목사, 김진희 사모,
서춘화 선교사, 박수연 집사,
싸이짜이 전도사

24

태국 현지인 코칭 소감문
싸이짜이, 모라 전도사,
이뿌 사모, 나로쑈

34

2023년 코칭 뉴스 TOP7

26

2023년 GO 코칭 목실기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2023년 결산)

39

북리포트
『말의 품격』
- 이창배 선교사

코칭 국제대표의 생각

GO Coaching Column

“당신은 비커밍 코치입니까? 메이킹 코치입니까?”



코칭을 하면서 스스로를 향해 던질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비커밍 코치입니까?(becoming coach) 아니면 메이킹 코치입니까?(making coach) 비커밍 코치는 코치가 되어 가는 과정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메이킹 코치는 이미 비커밍 코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코치로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1. 비커밍 코치(becoming coach)

당신이 코치가 되어 가는 위치에 있다면 비커밍 코치입니다. 비커밍 코치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코칭 세미나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자변 코칭”(*참고1)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자변 코칭에서 5가지의 중요한 요인을 학습합니다. 첫째: 사명(mission)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위에 부르셨는가? 존재 목적을 말합니다. 둘째: 비전(vision)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미래 보여 주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매력적(attractive), 도전적(challenge), 성취될(accomplishing) 미래 그림(future picture)입니다.

BC(비커밍 코치)

1. 코칭 세미나 등록
2. 자변 코칭 세미나 참석
3.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작성
4. 일대일 코칭 받기
5. 코칭 축제 컨퍼런스 참석

셋째: 핵심가치(core value)입니다. 핵심가치는 사명과 비전의 성취를 위한 밑거름(foundation)을 말합니다. 공간이나 시간이 지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forever and unchanging) 진리 즉 신앙과 믿음입니다.

다음은 네째: 목표(goal)입니다. 목표는 성취 결과를 말하며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고 3가지(사명,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와 연관성이 있게 세웁니다. 이 목표는 1년간 성취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 스마트스트(smartest) (*참고2)하게 세웁니다. 다섯째: 목표는 세우기만 하지 말고 그 목표 성취를 위한 방법이나 방안인 실행 전략(action strategy)을 세웁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만든 후 코치와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이룹니다. 그리고 매월 자신이 세운 목표와 실행전략을 실행합니다. 실행 한 후 한 달에 한번씩 코치를 만나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에 따라 개별 코칭(경우에 따라 팀 코칭도 받음)을 받습니다. 일 년이 끝날 때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코칭 축제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이곳에서 변화와 혁신의 삶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축하합니다. 수료증(certification)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는 사람이 비커밍 코치입니다. 코치가 되어 가는 위치에 서 있는 비커밍 코치라 할 수 있습니다. 비커밍 코치에서 끝나야 하겠습니까?

*참고1: 자변 코칭을 받은 후에 몇 주 혹은 몇 달 지난 후에 “세변 코칭”도 받습니다.

*참고2: 스마트스트(smartest): 구체적(specific), 측정할수 있게(measuable), 얻을수 있게(attainable), 현실적으로(reality), 시기에 맞게(timely), 책임감 있게(engagement), 만족스럽게(satisfied) 그리고 팀(team)과 함께 라는 뜻입니다.

2. 메이킹 코치(making coach)

코칭 세미나에 등록하고, 자변 코칭과 세변 코칭을 받고, 1년간 코치로부터 일대일 코칭을 받았으면 비커밍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온전한 코치라 할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메이킹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메이킹 코치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친한 동료나 후배를 찾아 코칭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준비 된 사람을 초청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커피 타임을 가지기도 하고, 준비된 식탁에 초대도 하기도 합니다. 코칭에 대한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셋째: 그들을 자신이 받았던 “자변 코칭”세미나에 참석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자신이 직접 동료나 후배의 코치가 됩니다. 넷째: 동료나 후배가 만든 목실기를 기초하여 매월 한번씩 만나서 코칭을 합니다. 이렇게 동료나 후배와 더욱더 깊고도 넓은 신앙의 관계를 맺습니다. 다섯째: 1년이 지날 때에 코칭 축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자격증(certification)을 받습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고 같이 하였으니"(살전 2:7) 또한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살전 2:10)라고 말합니다. 메이킹 코치는 유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코칭이라는 말은 15세기 헝가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귀부인을 마차에 태우고 서 있는 출발지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코치라는 말이 약간 변경되어 "교육계나 경영계에서 한 사람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potential gift)을 개발하여 성과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코치는 피코치를 도울 때에 상대방의 말을 하기 보다 들어 주고(경청/listen), 지시나 명령보다 물어보고(질문/question), 그리고 반응에 대해 칭찬과 격려(피드백/feedback)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비커밍 코치입니까? 메이킹 코치입니까? 당신이 비커밍 코치로서 훈련을 받았으면 메이킹 코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메이킹 코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메이킹 코치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비커밍 코치가 메이킹 코치가 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다음세대로 이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MC(메이킹 코치)

- 1.코칭할 사람 마음으로 잉태
- 2.코칭할 사람 관계맺고 초청하기
- 3.자변 코칭에 참여하기
- 4.일대일 코칭 하기
- 5.코칭 축제 컨퍼런스 참석 요청



2023년 11~12월

지역별 코칭 사역 중요한 NEWS

1. 고창 삼광침례교회 자변 코칭 세미나

2023년 11월 11일(토)과 18일(토) 양일간 오전 10:00-오후 4:00 고창 삼광 침례교회(윤보열 목사)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석정문 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제1기생으로 코칭을 받았던 오미숙 권사, 김희순 권사, 조성숙 권사와 김영은 장로님들이 코칭 세미나 비용을 내어 제2기생 6명을 초청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가 끝나면 12월까지 2024년을 위한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제 1기생 성도들이 제2기생 성도들과 파트너를 이루어 개별 코칭을 하게 됩니다. 제2기생들은 오미숙 권사가 권은숙 권사, 김희순 권사가 김영미 집사와 조혜정 권사, 조성숙 권사가 고진숙 권사, 김영은 장로가 박형곤 형제를 그리고 윤보열 목사님이 최용호 집사를 코칭하면서 동시에 제1세대 4명과 팀을 이루어 매3개월마다 코칭도 하게 됩니다.



고창 제2기생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2023년 11월11과 18일)

2. 구미 경서 노회 코칭팀을 위한 코칭 세미나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10:00-오후 4:00에는 구미 경서 노회(통합측) 4분의 목사님(박정양, 배상호, 권영철, 그리고 박은숙), 장현희 목사, 이희금 사모 그리고 석정문 교수가 구미 동일 장로교회(담임: 권영철 목사)에서 "원 데이 코칭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각자 2024년에 성취할 목표와 실행전략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래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에 근거하여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고 1년간 코칭을 받은 후 평균 82%의 성취율이 나타나는데 2024년 한해 동안 얼마나 성취율이 상승이 될지 기대됩니다.



구미경서팀 원데이코칭 워크숍(2023년 11월13일, 구미동일장로교회)

3. 새인천침례교회 평신도 코칭 세미나

12월 3일(주일)에 새인천침례교회(김기덕 목사)에서는 평신도 코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 11:00 예배 때에 "뜻대를 향해 달려라"(빌 3:14) 말씀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실행전략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수 있도록 돕는 코치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마친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30-3:00에 30여명의 평신도 리더들이 모여 실질적으로 2024년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실행전략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명의 성도들(김상표 안수집사, 김현숙 권사 등..)이 각자 만든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인천침례교회 코칭 세미나(2023년 12월 3일, 새인천침례교회)

2024년 한해 동안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대 됩니다. 한편 새인천침례교회(김기덕 목사)와 사랑침례교회(엄태윤 목사) 매 3개월에 한번씩 토요일에 교회 리더들을 초청하여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작성한 후에 나누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4. 서울 동대문구 영신침례교회 코칭 세미나 인도

서울 동대문구 영신침례교회(김진태 목사)에는 지난 11월 26일(주일) 오전 11:00에 “뜻대를 향해 달려라”(빌 3:14)의 말씀과 더불어 점심 식사 후 오후 2:00 예배에서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에 실시되었던 교회 건강진단 설문에서 나온 결과(40여명)를 모아 “교회 건강진단 처방 전략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교회가 가진 장점을 찾고, 미래 개발해야 할 개발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오후 3:00부터는 각 기관의 리더들 중 예배부와 음악부, 전도부, 교육부 그리고 목장부 등을 중심으로 담당자들이 모여 각 부서가 성취할 2024년의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영신침례교회 코칭 모임 (2023년 11월 26일)

5. 경기 부천 하늘빛 교회 코칭 모임

2023년 11월 12일(주일) 오후 2:00-4:00 부천 하늘빛 교회(김형태 목사)에서 주일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조직 코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마다 2024년에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부천 하늘빛 교회 조직 코칭 모임(2023년 11월12일)

6. 한국 코칭 부이사회 모임을 양주 캠퍼스에서 가짐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1:00-오후 3:00 한국 코칭 부이사회 모임이 양주 요셉 국제학교(대표: 윤광열 목사)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이사회 모임의 장소는 한국 코칭 부이사회 부이사장 윤광열 목사님이 용인 캠퍼스에서 양주 캠퍼스로 새로 이전하여 건물을 지은 기념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부이사회 모임에서는 2023년 한해 동안 그린오션 코칭의 목표와 실행전략이 거의 91% 성취되었다는 이야기, 올해 세운 목표중 에서 일대일 코칭 파트너십이 300개 이루어지기를 목표했는데 308개가 이루어진 이야기, 그리고 2024년을 향한 새로운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작성, 2024년의 코칭 세미나, 일대일 코칭 해외 선교 코칭, 그리고 조직 코칭, 교육 코칭에 관련된 일정표가 발표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모임에서는 현재 부 이사로 선정된 4분의 운영 부이사회(부대표: 정헌철 목사, 부이사장: 윤광열 목사, 부총무:박준영 목사, 대외 협력 위원장: 심용훈 목사) 이외에 박정일 목사(전주 온고을제자교회)가 부이사회 자료 연구 개발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부이사회 운영 위원들과 이사회 위원들(대표: 권종오 목사, 이사장: 김중식 목사, 총무: 김종성 목사)와 함께 전체 모임은 12월 21일(목) 오후 12:00에 부산 침례교회(김종성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2023년 한해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의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역사들을 나누고, 2024년을 향해 만든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과 2024년 코칭 사역 일정표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지원을 받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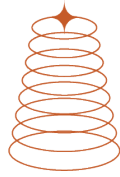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 부 이사회(2023년 12월4일, 양주 요셉 국제 학교)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 부 이사회 모임(2023년 12월 4일, 양주 요셉국제학교)

말레이시아
코칭가 인터뷰
평가
세미나
아나부



GO코칭연구소 대표 석정문 목사, 이희금 사모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 11월 3일까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등 4개국에서 선교사 및 현지인 리더들을 대상으로 자변과 세번 코칭을 진행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마인즈힐링교회에서 자변 코칭세미나 및 17주년 창립 기념행사가 열렸다. 16일부터 22일까지는 인도네시아 폰티아탁에서 현지인 리더들을 대상으로 세번 코칭이 진행됐다. 10월 23일부터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11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변 세미나가 진행됐다. 마지막 여정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네팔에서 선교사 4분 부부와 현지인 리더들을 대상으로 자변세미나로 끝이 났다. 세계와 열방을 품는 GO코칭연구소의 24일 간의 열방 사역 이야기를 각 지역 대표 선교사님들의 인터뷰로 심는다.

- 편집자 주



“말레이시아 현지인 교회에
코칭 문화가 뿌리내렸습니다.”

Q. 말레이시아 마인즈힐링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현지인 교회에서 조직코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코칭이 도입된지 6년이 되었는데요, 이번 말레이시아 코칭세미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마인즈힐링교회는 지도자 코칭세미나 2회, 세번 코칭 2회, 자변코칭 1회 등을 통하여 코칭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일대일 코칭을 실시하기 위해 피코치를 정하고 시작했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 그룹, 셀그룹, 교회 모든 조직이 코칭의 요소들이 도입되어 있고,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4일(토) 오전, 오후 하루동안 자변 코칭을 함으로써 코칭의 실제적인 적용의 필요성과 일대일 코칭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Q. 이번 코칭세미나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A. 기존에 있었던 코칭세미나와 비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의 코칭세미나를 통하여 코칭의 필요성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면,



이번 코칭세미나에서는 코칭을 자신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여 실제로 자신을 바꾸는 분명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번 코칭세미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세대(정희찬 선교사 - 요하네스, 리디 현지인 목회자), 2세대(요하네스 - 노르마, 헤스티, 에르니(3명), 리디 - 2명, 3세대(노르마 - 2명, 헤스티 - 2명, 에르니 - 2명)) 등 일대일 코칭이 3세대까지 조직이 되어 진행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Q.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향후 코칭세미나는 어떻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A. 마인즈 힐링교회가 일대일 코칭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변화시키면서 다윗의 4C를 향해 성숙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코칭 문화가 마인즈 힐링교회가 3세대의 일대일 코칭을 넘어 5세대 이상의 코칭이 이루어져 모든 성도가 코칭에 참여하여 교회가 성숙하며, 성장하며,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나가기로 꿈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에서도 마인즈 힐링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코칭사역에 참여하여 지역교회들이 코칭을 적용하여 지역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도 코칭세미나가 진행되는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말레이시아와는 다른 모습과 형태일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코칭세미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강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때, 석정문 대표님은 코칭을 할 선교사들을 모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선교사들을 설득하여 관심이 있는 선교사들로 팀이 구성되어 대전 판암장로교회에서 자변과 세변, 각각 2박3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때 인도네시아 서춘화 선교사와 중국에서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으로 사역지 변경을 앞두고 있는 김상규 선교사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춘화 선교사는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에 있는 선교사들과 더불어 줌으로 자변, 세변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3년 4월 석정문 대표님을 비롯한 코칭연구소팀이(정헌철 목사님, 유찬영 목사 등)이 직접 참석하여 서춘화 선교사와 더불어 이미 수료하고 일대일 코칭을 마친 선교사들과 그들이 일대일로 코칭할 현지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코칭 자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23년 10월 17-19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지난 4월에 자변코칭 세미나를 수료한 다수의 사람들과 새롭게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세변 코칭세미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석정문 대표, 서춘화, 정희찬, 박남호 등 4명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현지 목회자들의 간증들도 세미나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Q. 인도네시아의 코칭세미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인지요?

A. 이번에 진행된 세번 코칭 세미나는 코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제적인 필요성을 수용하고, 훈련을 통해 코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춘화 선교사 등 이미 세미나를 들었던 선교사들은 코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은 코칭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적용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하기는 현지 목회자들이 조직 코칭으로 자신들의 교회에 적용하고, 선교사들은 강사와 코치로 현지 교회를 섬기게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코칭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목회자들도 참여하여 교회를 변화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Q. 선교지에서의 코칭은 현지 상황과 선교사님들의 협력 여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칭세미나에서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와 기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GO Trive 코칭사역은 미국 이사회와 한국 이사회, 그리고 열방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열방 이사회는 이사장(이현구 목사), 부이사장(김형태 목사), 이사(유찬영 목사), 대표(양덕훈 선교사), 부대표(최하영 선교사), 총무(정희찬 선교사), 서기/회계(전훈재 선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방이사회 제1회 모임은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1회씩 이사회가 모이는데 코로나로 인해 연기하다가 마침내 제2회 열방 이사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열방 이사회 모임에는 한국에서 석정문 목사(이희금 사모), 장현희 목사, 강경숙 사모와 선교 현지에서 양덕훈 부부 선교사(태국), 정희찬 부부(말레이시아), 전훈재(네팔)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모임을 통하여 일대일 코칭을 하고 있는 해외 이사들을 더 영입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이사회는 동유럽 불가리아, 폴란드 등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열방 코칭은 계속 확장 중에 있어서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선교사역에 코칭이 중요한 도구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코칭을 하고 계시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분들의 기도와 동역을 요청합니다.





평가인터뷰 코칭세미나 인도네시아 도네시 코칭아나부

“선교사역과 현지인 목회사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Q.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코칭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세미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코칭세미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올해 4월 18-20일 기간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폰티아낙에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대일코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10월 17-19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미나는 지난번 참석했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각자 사역하는 신학교나 교회에서 2024년부터 “GO Thrive Coaching”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와 같았습니다. 4월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부교역자 또는 자신의 부인을 초청하여 내년부터 현지신학교 또는 현지교회에서 코칭을 시작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대일코칭을 하면서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변화되자 부인들이 참여하는 현상이 참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부족한 재정도 보충하는 등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코칭 강의도 여럿이 나누어서 하였기에 다양한 표현의 코칭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코칭세미나를 마친 이후에도 선교사들 가정이 돌아가며 강사분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Q. 이번 코칭세미나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이전의 세미나와 다른 점을 포함해 말씀해 주세요)

A. 지난번 “자변”코칭 세미나는 코칭을 소개하며 “목실기”를 작성을 하였고 일대일 코칭을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번의 “세변”코칭 세미나는 다른 사람들을 코칭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예를들면, 위리엄 헤르진도 목사는 자신이 섬기는 부디우또모교회의 부교역자 부부가 참여하도록 하여 코칭의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목사는 신땅교회에서 코칭을 시작하기 원하자 사모가 자원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라기 목사 부인과 아리안또 전도사 부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에서 석정문 목사님, 이희금 사모님, 정현철 목사님, 유찬영 목사님, 홍재기 장로님이 강사와 섬김이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석정문 목사님, 이희금 사모님, 코칭해외이사 정희찬 선교사, 능력침례교회 강경숙 사모님이 강사로 섬김이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의의로는 2024년 4월 2-5일 폰티아낙 코칭세미나에서는 “자변” + “세변” 코칭을 합해서 3박 4일로 진행되는 통합세미나에서 현지 목회자도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변” 코칭 세미나에서는 지난번 “자변” 코칭 세미나보다 더 이해가 높았고 다음번 현지 목회자 중심의 코칭세미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지난 2회차 세미나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향후 코칭세미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A. 내년 2024년 4월 “자변 + 세변” 통합 코칭세미나를 마치면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이 섬기는 신학교와 지교회에서 코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코칭을 통해 자신의 “목실기”를 작성하고 일대일코칭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지역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되는 목회적 코칭사역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견고하세 되고 현지 목회자의 목회가 성도를 세우는 본질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인도네시아의 코칭 사역에 기대는 어떤 것 인지요?

A. “자변” 세미나와 “세변” 세미나는 한국의 강사와 선교사가 강사 또는 통역을 하였습니다. 내년 2024년 4월에도 한국의 강사와 선교사가 강의와 통역을 하겠지만 현지인 목회자들도 강사로 참여하여 코칭을 가르치는 역량을 높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코칭 사역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 ◆ 동남아시아 코칭세미나 평가

Q. 코칭레터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타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번 동남아시아 코칭세미나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의의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코칭을 접할 만큼 코칭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폰티아낙의 대형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에서도 코칭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여자들이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리고 추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석정문 목사님의 GO Thrive Coaching은 일대일코칭을 통하여 코칭이 생활화되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과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심플하지만 반복되는 일대일코칭을 통하여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수정해 나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학생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매우 실재적이고 유익합니다. GO Thrive Coaching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Q. 선교지에서의 코칭은 현지 상황과 선교사님들의 협력 여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칭세미나에서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와 기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폰티아낙 선교사들은 제자훈련 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갖는 한계성을 발견하고 또한 코칭의 지도력을 발견한 이후에 팀의 선교사들은 서로 협력하며 코칭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미나 때마다 역할을 나누고 있으며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현지인 지도자에 대한 코칭이 실패하는 것 같거나 느린 것 같아도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의 각 사역지에서 건강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칭 세미나를 통한 첫 번째 열매는 선교사 자신의 변화입니다. 대화하는 자세의 변화, 말하는 어투의 변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의 변화 등입니다. 이는 가정과 선교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코칭 세미나를 통한 두 번째 열매는 다른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방법을 모르거나 지도력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대일코칭을 하다보면 이러한 것들이 선교사들에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배운 코칭을 보다 쉽게 목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석정문 목사님과 이회금 사모님, 그리고 여러 강사님과 섬기시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폰티아낙에서의 선교사역과 현지인 목회사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코칭을 통한 건강한 선교와 목회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가인터뷰
코칭세미나
네팔과인도지역



“힌두교의 나라 네팔과 인도에
코칭 사역이 시작됩니다.”

Q. 안녕하세요. 코칭레터에 네팔의 소식을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칭레터를 통해 네팔의 코칭 소식을 접하는 분들께 인사부탁드립니다.

A. 저이며시(승리 메시아(예수))
힌두교 국가인 네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네팔에서 2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전훈재 선교사입니다.



Q. 네팔의 전반적인 선교 상황은 어떤가요?

A. 네팔은 힌두교 국가로 2018년 8월 개종 및 전도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2023년 1월 BBC 뉴스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 성장률 1위인 나라가 네팔입니다.



Q. 네팔의 전반적인 선교 상황은 어떤가요?

A. 네팔은 힌두교 국가로 2018년 8월 개종 및 전도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2023년 1월 BBC 뉴스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 성장률 1위인 나라가 네팔입니다.

Q. 네팔에서 선교사 중심으로 코칭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와 행사향이 어땠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팔은 선교사들 사이가 그 어느 선교지보다 좋습니다. 초교파로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번에 코칭 세미나도 이곳 네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부부를 초대하여 진행하였고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Q. 이번 코칭세미나 후 선교사님들의 반응 및 적용에 대한 비전은 어땠나요? (선교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인적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 등)

◆◆ 동남아시아 코칭세미나 평가

A. 우선 코칭 세미나가 다른 어떤 세미나와 달리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닌 계속 격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코치한다는데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한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을 하기 어려웠는데 코칭을 알게 되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코칭 받은 후 한 달 후에 사역자들을 각각 만났는데 목실기를 또한 아주 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지적, 육체적, 사회적인 면들을 더욱 향상 시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 이번 세미나를 기반으로 네팔 지역에서 향후 코칭세미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A. 이번에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을 하였고, 다음 내년 4월달에는 세상을 변화 시키는 코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년 10월에는 이번에 세미나 받은 사역자들이 다음 코칭을 할 사람들을 초대하여 코칭 세미나를 참석하게 하고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네팔을 중심으로 서남아시아 전역에 코칭 사역이 더욱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인도의 코칭 사역에 기대는 어떤 것인지요?

A. 내년 10월달에는 네팔 코치들이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코칭 세미나를 하여 코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코칭레터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타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번 동남아시아 코칭세미나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의의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칭은 단순히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그 다음 멘토링이나 카운슬링, 컨설팅이 아닌 코치를 해 준다는 것이 포인트며, 그 사람의 역량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이것이 선교지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자신 뿐만 아니라 네팔 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Q. 선교지에서의 코칭은 현지 상황과 선교사님들의 협력 여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칭세미나에서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 와 기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코칭 세미나에 참석하여 받은 네팔 현지 사역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말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을 통해 서남아시아 7개 나라가 코칭으로 나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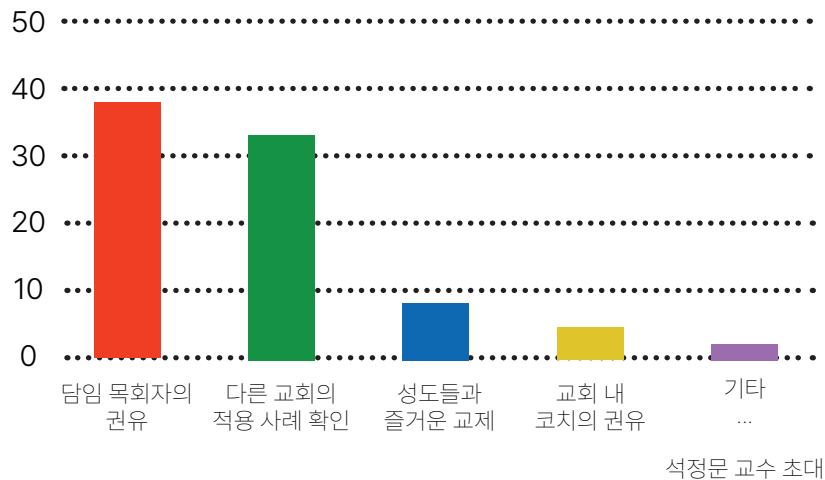


제 1회 GO코칭 평신도축제컨퍼런스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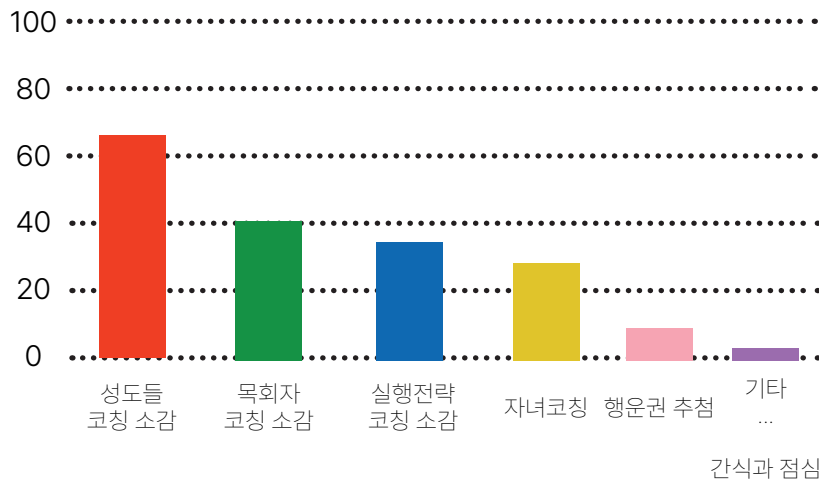
지난 10월 9일 그린오션코칭연구소(대표 석정문)는 9일 세종시 하나교회(위남환 담임목사)에서 제1회 GO 코칭 평신도축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임에도 불구하고 코칭으로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14개 교회와 기관 목회자와 평신도 1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코치로 또는 피코치로 서로를 세워가는 권사와 집사들은 코칭을 통해 변한 삶의 태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간증했습니다. 평신도축제컨퍼런스 평가 설문에서는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의 대다수가 '매우만족', '만족' 등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평신도축제컨퍼런스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GO코칭 평신도축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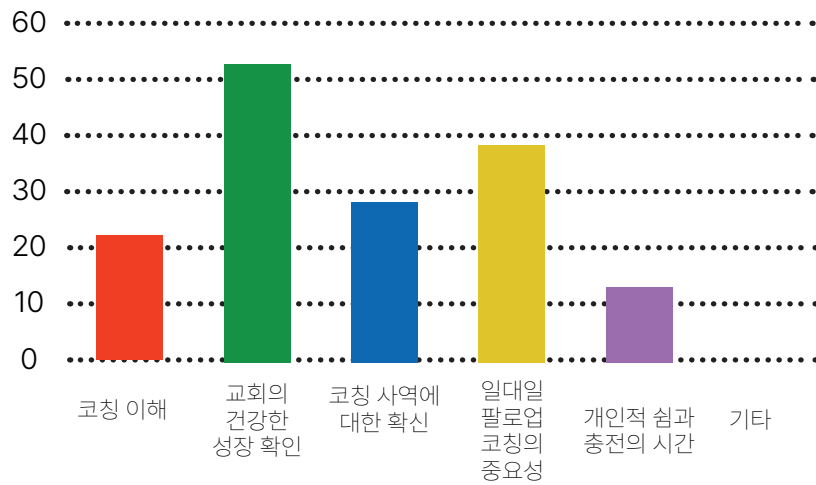


2. 평신도축제컨퍼런스에서 좋았던 순서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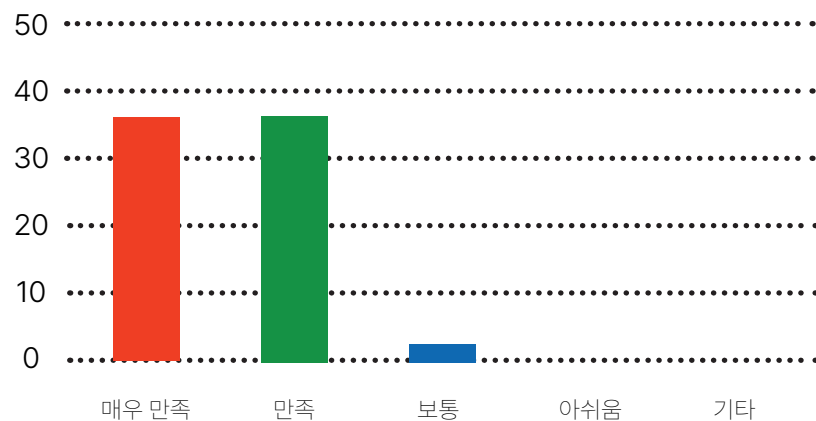


3. 평신도축제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4. 평신도축제컨퍼런스 축체 참여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아쉬움 ⑤ 기타 :



주관식 답변 중 몇 개만 골랐습니다.



5. 평신도축제컨퍼런스의 좋았던 순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경험 나눔과 지역의 특색과 교회의 다양한 운영 경험이 좋았습니다.

영적, 육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섬겨주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음.
목표와 실천을 정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으로 이끌어가는 실천의 삶이기에
더욱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코칭을 받으면서 겪었던 감정, 들었던 생각 등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려주었던 점에서 내가 코칭을 받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솔직하고 감동적인 간증이 너무 좋았다. 조직에도 코칭을 적용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린 자녀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가족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 생각되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사역을 하시는지 직접 들어보니 우리 목사님도 힘들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모습과 닮아서 감동되었다.
모습, 목소리,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시는 목회자님들, 석정문, 이회금 선구자께 감사드립니다.



6. 다음 제2회 평신도축제컨퍼런스를 위해 개선점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순서들이 간결하고 깔끔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연휴를 이용할 수 있다면 1박2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감 발표도 할 수 있고요.

소감발표가 많았다. 조금 지쳤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과 Q&A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별, 교회별 다 참여해서 발표보다는(많은 발표자보다) 감동이 더 있는 개인을 뽑아서 조금 더 길게 발표를 하면 질적으로 더 나을 듯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 GO코칭연구소 및 코칭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 코칭사역에 대한 권면과 아이디어,
지체 교회들을 향한 기대 등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코칭 모습에 감동되고 전도 코칭에 동참하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간증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코칭이 더욱 발전하시길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코치를 받고, 코치를 하면서 얻게 되는 개인적 역량의 성장에
감동이 됩니다.

준비된 모습에 감동적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의 간증은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시간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꾸고 희망을 심으며 이 삶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라며, GO코칭연구소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교회마다 뿌리내리는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지금이대로 아주 많이 즐겁고 기쁩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GO 코칭연구소가 향후 전문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그 분들을
양성하여 각 교회의 전담으로 발전시키면 다음세대나 노후세대에
전도와 헌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칭 사역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섬김과 손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치로서 일대일코칭 1년을 마치며

| 2023년 11월 30일

싸이파이전도사 (메아이 중고등학생 담당 전도사)

우선 코칭을 통해 나의 영, 혼, 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코칭을 소개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칭을 했고 이제 내년 1월이면 3년째 코칭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칭을 하면서 깨달은 유익한 점은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리

고 주어진 일에 내가 책임감을 갖고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일 때에 맞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 번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잠잠해지며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잠잠하게 되고 말하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코치가 되어 일대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로서 피 코치를 세우고 일대일코칭을 하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더 큰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두 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다시 한번 더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코치로서 일대일코칭을 마치며

| 2023년 11월 30일

나로쑤 (메아이 라후신학교 2학년 재학 중)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나로쑤입니다. 저는 현재 메아이라후신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일대일 코칭 일년을 마치며 제게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코칭이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가 스스로 만든 목실기를 통해 매일매일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라후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지금은 라후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 가장 큰 변화와 성장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대일 코칭 1년을 끝내고 2년째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 믿음이 더 생겨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로서 일대일코칭 1년을 마치며

| 2023년 11월 30일

모라 전도사 (후아이무앙어린이센터 사역자)



일대일코칭을 하며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나의 생각, 행동, 말하는 것, 그리고 시간 사용에 있어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코칭은 무엇보다 목표와 실행전략을 제대로 만들

어 그대로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할 때 코칭이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칭은 마땅히 내가 걸어야 할 길이며 삶의 기본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칭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큰 의미입니다. 코칭은 삶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기에 지금도 목실기를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로서 일대일코칭 1년을 마치며

| 2023년 11월 30일

이부사모 (후아이무앙어린이센터 사역자)



나에게 코칭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칭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나를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6독을 하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

면서 내 마음 안에 커다란 평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적인 성장이며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피 코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코치로서 저 자신에게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목표가 분명해지고 특별히 지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사회적 부분 그

리고 육체적인 부분에서 코치와 피 코치가 함께 성장하는 유익을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의 마스터 플랜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1-12월 결산)

I. 그린오션코칭 연구소(영문:GO Thrive Coaching)의 존재 목적/ **사명(Mission)**

**“변화와 혁신의 삶을 살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 코칭하는 코치”
(성령의 도움으로). (롬 12:2, 딤후 2:2)**

“Becoming a change and innovative life coach and making a generation to generation coach” (by the help of Holy Spirit)”(Romans 12:2, II Tim 2:2)

● 설명1: “사명(mission)”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맡겨 주신 일”(행 20:24, 출 4:8-12)

● 설명2: “변화와 혁신의 삶”은 코치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심)을 본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롬 12:2)

● 설명3: “세대와 세대를 넘어 코칭하는 코치”는 바나바가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디모데,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reliabel men),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코치로 세우듯이, 재생산(reproduction)과 배가(multiplication) 사역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딤후 2:2)

● 설명4: “성령의 도움으로(by the help of Holy Spirit)” 사람을 코칭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설명5: “코치”라는 말은 15세기 헝거리에서 귀부인이나 귀공자를 모시고, 출발지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마부(혹은 마차)를 가리켰습니다. 그 후 그 말이 영국으로 건너가 학습 코치, 스포츠 코치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B학점에서 A학점으로 성과창출을 돕는 사람을 학습 코치, 스포츠 선수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 은메달 선수에서 금메달 선수로 성과창출을 돕는 사람을 스포츠 코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코치라는 말이 교회에 들어와 구역원의 잠재력을 끌어내어(잠 20:5) 신앙 향상을 돕는 사람을 구역 코치, 주일학교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신앙 향상을 돕는 사람을 교사 코치, 그리고 목회자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목회 향상을 돕는 사람을 목회 코치 그리고 선교사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선교 향상을 돕는 사람을 선교 코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신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신앙향상을 돕는 사람을 평신도 코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역 코치, 교사 코치, 목회 코치 선교 코치 그리고 평신도 코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코칭이기에 성령의 도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II.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 2030년의 **비전**

1. 코칭으로 3R/5G 사역을 통해 1,600개의 세대를 넘어 가는 코칭 파트너십을 세운다”

Building 1,600 gen to gen coaching partners through 3R/5G ministry

● 설명1: “코칭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potential gift)을 끌어내어 성과창출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경청, 질문 그리고 피드백)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사람들(코치)을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 설명2: ”3R“:기관이나 조직의 리더들을 갱신(Renew), 부흥(Revive) 그리고 지역을 새롭게 변화(Refresh)시키는 사역(로 12:2)을 말합니다.

● 설명3: ”5G“: 5G는 1세대로 코칭을 받은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것(becoming coach)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1세대가 된 코치가 이제는 코칭을 받아 은혜를 받았으니 동료나 후배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2세대를 찾아 코칭(making coach)을 하는 일입니다. 또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2세대 코치는 제3세대 코치가 될 사람을 찾아 코칭을 하고, 그 제3세대 코치는 제4세대 코치, 그리고 제4세대는 제5세대 코치를 찾아 코칭하여 코칭이 재생산(reproduction)에서 끝나지 않고, 수 세대에 걸쳐 배가(multiplication) 사역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세대를 넘는 코칭이 서로 연결(connection)되고, 팀워크(teamwork)을 이루어, 이 땅위에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딤후2:2, 전4:9-12)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설명4: ”1,600명의 코칭 파트너“: 2030년까지 일대일 코칭을 통해 1,6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형성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2021-22년(2년간)에 100개의 코칭 파트너, 2023-24년(2년간)에 200개(100의 2배)의 코칭 파트너, 2025-26년(2년간)에 400개의 코칭 파트너(200의 2배), 2027-28년(2년간)에 800개의 코칭 파트너(400명의 2배), 그리고 2029-30년에 1,600개(800명의 2배)의 코칭 파트너를 형성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2031년 4월과 10 월에는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코칭 축제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열고, 미국과 열방의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을 초청하여 축제를 올려 드릴 것입니다.

● 설명5: 비전은 (1) ”호르마“(헬라어)이며,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눈“, 또는 ”현재와 미래에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 즉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 실체의 작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일반적으로는 ”매력적이며, 도전적이며, 미래 성취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말함

2. 2030년까지 1,600명의 코칭 파트너 세우기

- 1) 2021-22년: 100명의 코치를 한국, 미국 그리고 기타 국가에 세우고,
- 2) 2023-24년: 100명의 코치들이 각각 2명씩 코칭하고 2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세우고,
- 3) 2025-26년: 200명의 코치들이 각각 2명씩 코칭하고 4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세우고,
- 4) 2027-28년: 400명의 코치들이 각각 2명씩 코칭하고 8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세우고, 그리고
- 5) 2029-30년: 800명의 코치들이 각각 2명씩 코칭하여 1,600개의 코칭 리더십 파트너를 세운다.

2021-2022년(1차년도 코칭) 비전 성취 성취 차트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합계
1. 한국 일대일 코칭	38개	56개	17개		111개
2. 열방 일대일 코칭	33개	25개	5개		63개
세대별 일대일 코칭 합계	71개	81개	22개		174개
세대별 전체 종합	174개				

2023년의 300개의 코칭 파트너 세우기 위한 비전 성취 차트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합계
1. 한국 일대일 코칭	46개	87개	42개	2개	177개
2. 열방 일대일 코칭	47개	37개	46개	1개	131개
일대일코칭합계(1-12월)	93개	124개	88개	3개	308개
성취 비율	308개를 300개로 나누면 12월3일 현재 102% 달성				

III. 핵심 가치와 따른 목표(Core values and goal setting)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GO Thrive Coaching)는 아래와 같이 5개의 핵심가치를 기초해서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워서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그리고 창조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설명 1: "핵심가치"란 기관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또한 그 기관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구히 변화되지 않는 성경적 믿음이나 신념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한 기관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는 4-7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치1. 성장(Growth) = 자료 개발(Resource Development)

코칭과 관련된 가치 있는 자료(Valuable Materials)들을 찾고, 평가하고, 연구하고, 출판하여 회원들의 역량과 리더십의 개발을 돕는다.(에스라 7:10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목표 1-1 : 코치들의 역량과 리더십의 성장을 위해 세미나 교재(3권)를 개발한다.

목표 1-2 : 코치들이 코칭과 관련된 책을 10권을 읽고 10편의 소감을 쓴다.

목표 1-3 : GO 코칭 뉴스 레터를 6회 발행한다.

목표 1-4 : 코칭 컨퍼런스를 위해 목실기를 모아 3권의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출판한다.



1-12월의 결과: 목표1:100%+목표2:80%+목표3:100%+목표4:100% 달성하여 합은 380%이며, 4로 나누면 **평균 95.00% 달성**

가치2: **탁월(Excellency)** = 코치 훈련(Leader Training) (목회자/선교사/사모 코칭)

코치들의 질(Quality)적 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여 탁월한 코치가 되게 한다.
(이사야 5:2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좋은 포도 맺기를..)

목표 2-1 : 코치의 역량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 7명의 목회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한다.

1차 목회자 모집과 훈련(서울/경기 지역)

목표 2-2: 2차 목회자 8명 모집과 훈련(부산/경남 중심)/구미 경서팀으로 대체함

목표 2-3 : 코치의 역량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 15명의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한다.

목표 2-4: 2차 선교사와 현지인 15명을 모집하여 훈련한다.(네팔, 카트만두)

목표 2-5 : 코치들의 역량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 20개팀(100일을 코칭)에게 코칭 세미나를 제공한다



1-12월의 결과: 목표2-1은 43%, 목표 2-2는 50%, 2-3는 133.3%, 목표 2-4는 133.3%
그리고 목표 2-5는 49%로 이를 합하면 408.6%, 이를 5로 나누면 **81.7% 달성**

가치3: **재생산(Reproduction)** = 코칭 사역(Generation Coaching) (피코치/현지인세우기)

코칭 받는 코치들이 개별코칭(=맞춤형)과 팀 코칭을 받아 역량과 리더십이 개발되어 5세대에 걸쳐 재생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한다.

(살전 1:7 그로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2:7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

목표 3-1 : 코칭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들 190명을 대상으로 1:1 코칭을 하고,

목표 3-2 : 해외의 선교사들과 현지인들 1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코칭을 한다.



1-12월의 목표3의 결과: 3-1: 93.2% 3-2: 119.1%의 합은 212.3,
이를 2로 나누면 **106.15% 달성함**

가치4: **극대(Maximum)** = 성과 경영(Performance Management)

싱크 와이즈(Think Wise), 온라인 컨퍼런스(On line Conference) 및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을 통해 코칭 성과(영적 열매)를 극대화한다.(마 7:17-20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목표 4-1 : 코칭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개별 혹은 조직의 건강진단 보고서 100명분을 작성하고,

목표 4-2 : 2회에 걸쳐 축제컨퍼런스(6월과 10월)를 열고 50명분의 참석과 목실기를 출판하고

목표 4-3 : 코칭 세미나를 마친 분들에게 수료증(자격증 포함)하여 100명에게 전달한다.

목표 4-4 : 25명의 이사진을 만들고 월 250만원의 수입을 조달한다.

목표 4-5 : 재정 수입으로 9880만원을 조달한다.

(장학금 3000만원 포함/실질적으로 6,880만원 조달)



1-11월 목표4의 결과: 4-1: 49% 4-2: 270% 4-3: 60%, 4-4: 72%, 4-5: 90.77%의 합은 541.77%, 이를 5으로 나누면 **108.35% 달성함**

가치5: **협력(Cooperation)** = 지역사회(Community Networks)

코칭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제자, 코치, 소그룹을 재생산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맺어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요15:8,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딤후 2:2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목표 5-1 : 타 기관과 연합하여 다음 세대 코치가 될 분 4명에게

4,800불(한화: 624만원) 선정하고 코칭 선교장학금을 제공하고,

목표 5-2 : 코칭 모델과정으로 30명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장학증서(3000만원)를 주고,

목표 5-3 : 매년 건강한 코치상(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등)을 전달하고

목표 5-4 : 해외 선교사들이 코칭하는 현지인 20명(일인당 \$50/5만원)에게 코칭장학금을 제공한다 .



목표5의 결과:5-1: 50%+5-2: 86.7%+5-3: 100%+ 4:30%의 합은 266.7% 4로 나누면 **66.7% 달성**

GO health coach Award of the Year i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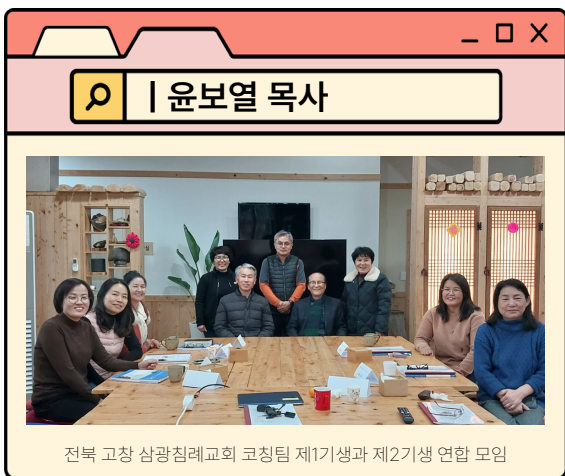
2023년 그린오션 건강한 코치 상패 증정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에서는 매년 일대일 코칭과 조직 코칭 분야에 앞서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그 해의 GO 코치 건강한 상>으로 상패를 드립니다. 올해는 아래 5분이 선정되었습니다.

- (1) "건강한 코치 목회자 상"에는 전북 고창 침례 교회 윤보열 목사
- (2) "건강한 코치 사모 상"에는 서울 강동구 늘푸른 교회 김진희 사모
- (3) "건강한 코치 선교사"에는 인도네시아의 서춘화 선교사
- (4) "건강한 코치 평신도상"에는 부산 부산진구 동성교회의 박수연 집사
- (5) "건강한 코치 현지인 상"에는 태국, 치앙마이 메아이 현지인 싸이짜리 전도사

"건강한 코치 목회자상"

#01



윤보열 목사는 2022년 초에 목회자 코칭을 받은 후 곧 바로 2023년 1월에 5명의 성도들(장로 1명, 권사 4명)을 선정하여 "자변 코칭", "세변코칭"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5명의 성도들을 10개월간 꾸준히 일대일 코칭을 한 결과 4명이 일대일 코칭(오미숙, 김희순, 조성숙, 김영은)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제2세대 코치를 세우기로 마음으로 잉태한 후 6분의 성도들(권은숙, 김영미, 조혜성, 고진숙, 박형곤, 최용호)을 선정하여 "자변 코칭"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이제 2024년 1월부터 제1기생과 제2기생들과 사이 일대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목실기>를 만들어 일대일 코칭을 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고 감사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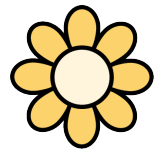
"건강한 코치 사모상"

#02

🔍 | 김진희 사모

서울 강동구 늘푸른 교회 **김진희 사모**는 그린오션 코칭 역사상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2명, 심태윤과 심태성을 일대일 코칭을 하였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번씩 만나 코칭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장 모델(눅2:52)에 따라 지적 성장을 위해 책읽기, 육체적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 다니기,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읽기 그리고 사회적 성장으로 동네 아이들과 놀기, 등을 꾸준히 실행하여 아이들의 삶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지난 10월9일(월) 제1회 평코칭 축제 컨퍼런스에서 1년간에 일어났던 심리적 영적 변화 등을 15분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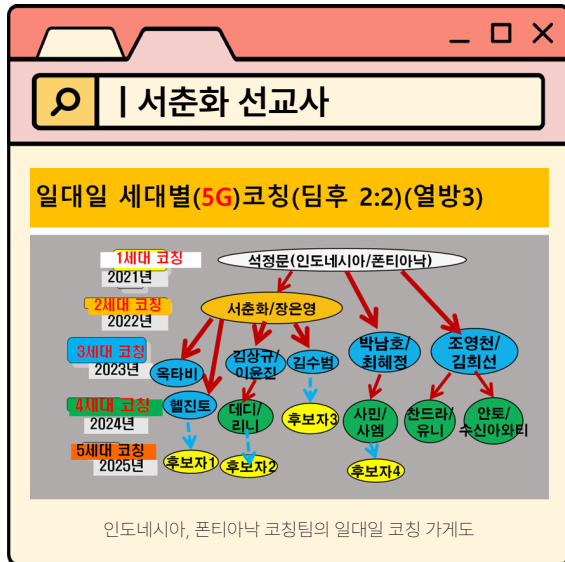
“건강한 코치 선교사상”

#03



“건강한 코치 평신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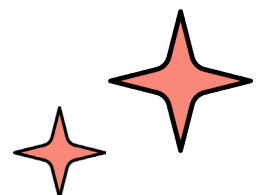
#04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의 **서춘화 선교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본국에 와 계시던 2021년 4월 대전, 판암장로교회 선교관에서 실시한 코칭 세미나에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 후 석정문 교수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세우고 1년간 매월 한번씩 만나(zoom) 코칭을 받은 후 삶과 사역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제자 훈련을 실시했지만 삶과 사역에 변화와 성장의 부족함(지식에서 행동으로)을 알고, 동역자 선사님들(박남호, 김상규, 유명한 조영천, 김수범 등)과 팀을 이루어 현지인 목회자들 부부 16명을 초청하여 2023년 4월에는 “자변 코칭”, 10월에는 “세변 코칭”을 하였습니다. 그 후 현지인들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이루어 전투젠코칭(gen to gen coaching)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2024년 4월에는 현지인들이 일대일 코칭을 받은 후 그들이 또 현지인들을 모시고 “자변 코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부산 부산진구 동성교회(담임: 박준영 목사)는 2019년 10월에 석정문 교수를 초청하여 교회 <건강진단 처방 전략 세미나>를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닌 장점들을 찾고, 미래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할 점을 찾았습니다. 그 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우고 교회가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2021년에서 23년까지 3년간 매년 2월마다 석정문 교수를 초청하여 3개의 토요일(오전 10:00-오후 4:00)을 중심으로 평신도 리더들을 선택하여 “자변 코칭”과 “세변 코칭”을 통해 코치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담임목사로부터 코칭을 받았던 민향숙 권사가 2022년에는 **박수연 집사**를 코칭하였습니다. 1년간 성실하게 코칭을 받았던 박수연 집사가 2023년에는 노현주 집사를 코칭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코칭을 받은 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후배나 동료들 찾아 코칭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국 치앙마이, 메아이에 사역하고 있는 이형국 선교사와 추승주 선교사 부부는 코칭 세미나를 마친후 이형국 선교사는 석정문 교수와 추승주 선교사는 이희금 사모와 한 달에 한 번씩 일대일 코칭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부부는 코칭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코칭 관련 책을 읽기도하고, 읽은 소감을 쓰기도 하고 또한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후 2021년에는 자신의 선교 사역에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현지인 사역자 3명(싸이짜리, 모라, 이뿌)에게 목실기를 만들게 하고 1년간 일대일 코칭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3명은 또 다른 3명(나로쵸, 포떼, 엘리자벳)을 마음으로 품고 잉태하여 1년간 실질적으로 일대일 코칭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형국 선교사와 추승주 선교사 부부는 뒤에서 그들을 계속해 삼겹줄 코칭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현지인으로 일대일 코칭을 마쳤던 **싸이짜이 전도사**는 최초로 현지인 제2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마쳤습니다. 제3세대 제4세대 젠투젠 코칭(gen to gen coachin)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태국, 치앙마이 메아이 최초 현지인 코치가 된 싸이짜이 전도사와 모친



2023년 GO 코칭의 Top 7가지 뉴스



1. GO 코칭 부이사회 5명으로 구성

GO 코칭 연구소가 시작이 된지 올해가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동안 제1기생 목회자 중심으로 그린 오션 코칭 이사장 김종식 목사(포항중앙침례교회), 대표 권종오 목사(동래제일장로교회) 그리고 총무 김종성 목사(부산침례교회), 그리고 류규석 목사(대전 앤드비전교회), 이원봉 목사(서울 강진구 보광교회)들의 지원과 기도로 코칭 사역이 그 동안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전에 제4생들을 중심으로 부이사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4명의 목회자들을 선정하여 부대표 정헌철 목사(서울 동대문구 동일침례교회), 부이사장 윤광열목사(양주 요셉국제학교 대표), 부총무 박준영 목사(부산 부산진구 동성교회) 그리고 대외 협력 위원장 심용훈 목사(서울 강동구 늘푸른교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 10월에 코칭 자료 연구 위원장으로 박정일 목사(전주 온고을 제자교회)가 이사로 선정되어 5명으로 부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부 이사회 회원들은 매3개월마다 한번씩 만나 GO 코칭 연구소의 발전과 성장, 특히 젠투젠 일대일 코칭(gen to gen one on one coaching)사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림1. 부이사회 모임(양주 요셉국제학교, 2023년12월4일)

2. 일대일 코칭 파트너 308개로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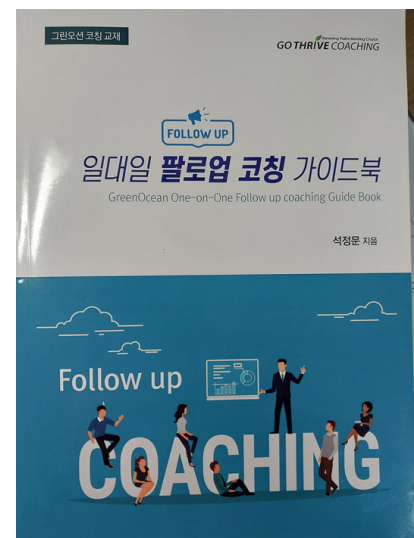
지난 2019년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에서는 일대일 코칭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린오션 코칭 열방 선교 총무인 정희찬 선교사(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제안을 받아 “일대일 팔로업 코칭 가이드북”(2019년, total p.110)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후 코치와 피코치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1년간 꾸준히 목실기를 만들고 일대일 코칭을 한 후 2020년에는 한국과 열방에 24개 파트너, 2021년에 46개 파트너, 2022년 174개 파트너 그리고 2023년에 308개의 파트너들이 짝을 이루어 일대일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아가면 2024년에 400개의 파트너가 형성될 것이고, 2030년에는 1600개의 파트너가 형성되어 그린오션 코칭 연구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이라 여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젠투젠 일대일 코칭을 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젠투젠 일대일 코칭 사역이 시작된지 4년째가 되어 한국에는 현재 제4세대를 넘어 젠투젠 코칭을 이룬 교회가 서울 동일교회(정헌철 목사)와 부산 동성교회(박준영 목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3세대를 이룬 교회가 서울 늘푸른교회(심용훈 목사), 전주 온고을제자교회(박정일 목사), 안성 동아시아신학원(최선희 교수), 그리고 제2세대 코칭이 이루어진 교회는 고창삼광교회(윤보열 목사), 신태인침례교회(조대식 목사), 김제제자교회(최태규 목사), 부천하늘빛 교회(김형태 목사), 구미선산읍교회(김상로 목사), 대구하양교회(남주현 목사)가 앞서 젠투젠 일대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젠투젠 코칭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는 인천의 새인천침례교회(김기덕 목사), 인천사랑교회(엄태윤 목사), 서울 영신침례교회(김진태 목사), 세종하나교회(위남환 목사), 포항말씀이 샘솟는 교회(김석기 목사) 등이 있습니다.

한편 열방 코칭에서는 제2, 3세대 코칭이 시작된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서춘화, 박남호, 김상규, 조영천, 유명환, 김수남 등),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정희찬, 요하네스), 태국, 치앙마 이(오영철/김보순, 박선기), 태국, 메아이(이형국/ 추승주) 그리고 2024년에 이 역사에 동참할 지역은 네팔(전훈재), 우크라이나(이창배) 등입니다.



▶ 그림3. 일대일 코칭 가이드 북

한국과 열방 코칭 사역의 합계

세대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합계
	한국	열방	코치	지역	코치	지역	코치	지역	
	46	47	87	37	42	46	2	1	
	93		124		88		3		308명
년도별	한국	열방	한국	열방	한국	열방	한국	열방	
2020	4	4	8	8	0	0	0	0	24명
2021	18	10	10	8	0	0	0	0	46명
2022	38	33	56	25	17	5	0	0	174명
2023	46	47	87	37	42	46	2	1	308명
합계	93명		124명		88명		3명		

4. 한국은 젠투젠 4세대 코칭, 열방은 전투젠 3세대 코칭

한국에서는 GO 전투젠 코칭(세대를 넘어서 코칭) 사역이 활성화되어 최초로 서울 동일침례 교회(정헌철목사) 담임목사로부터 코칭을 받은 제2세대 박종남 권사가 제3세대 최필자 권사, 제2세대 서일옥 권사가 제3세대 나현아 집사를 코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세대 최필자 권사는 최초로 제4세대 김영숙 권사를 코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현아 집사는 제4세대 코칭할 사람을 찾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동성교회(박준영 목사)에서는 제2세대로 민향숙 권사와 안태란 집사가 담임목사로부터 코칭을 받았고, 그 후에 민향숙 선교사는 제3세대 박수연 집사를 코칭하였고, 박수연 집사는 후배 제4세대 노현주 집사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제2세대 안태란 집사는 제3세대 성혜순 집사와 최미기 집사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 그림4. 부산 동성교회 제1세대에서 제4세대 코칭받은 분들의 모임

5. 한국에서 제1회 목회자 및 평신도 축제 컨퍼런스 가짐

지난 4년 동안 젠투젠 일대일 코칭 사역을 하면서 제1세대에서 제2세대, 제2세대에서 제3세대, 그리고 제3세대에서 제4세대까지 코칭을 한 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이 6월27일(월) 오전 10:00-오후 4:00 대전 한샘교회(최홍훈 목사)에서 38명이 모여 제1회 목회자 축제 컨퍼런스를 열고 각 교회마다 코칭을 통해 하나님과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주셨던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10월9일(월) 오전 10:00-오후 4:00 세종 하나교회(위남환목사)에서 97명이 모여 평신도 축제 컨퍼런스를 가지고 평신도 리더들 속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2024년에 제2차 목회자와 평신도 축제 컨퍼런스가 기대됩니다.



6. 2023년 4월과 10월에 현지인 대상 코칭 세미나 열림

2023년은 특별한 해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는 한국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제4세대 코칭 사역에 몰입을 하였지만, 2023년 부터는 한국에서 코칭한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열방의 현지인들에게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저 인도네시아, 폰티아낙(팀장:서춘화 선교사)에서 4월과 10월에 자변과 세번 코칭이 16명의 현지인 대상으로 실행이 되었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팀장: 정희찬 선교사)에서는 10명의 현지인들이 자변 코칭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이 두곳의 영향을 받아 10월에는 네팔, 카트만두(팀장: 전훈재 선교사)에서 16명의 현지인들을 초청하여 자변 코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편 한글로 된 자변과 세번 코칭 교재는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그리고 태국어로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대일 코칭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 그림6. 인도네시아 세번코칭세미나(2023년 10월 17-19일)



7. 미국에서 강경숙 사모와 최훈집사가 한국과 열방 코칭 사역에 동참

올해는 특별히 미국 코칭 사역의 대표이었던 이성권 목사(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이 작년 12월 소천한 후 강경숙 사모가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폰티아낙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인 코칭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의 뒤를 이어 코칭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에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성권 목사를 통해 코칭을 받았던 최훈 집사님이 사역을 물러주고 은퇴를 한 후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캘리포니아, LA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코칭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미국에 평신도 코치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석정문 교수로부터 “자변 코칭” 세미나와 동시에 일대일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2023년에 기억에 남을 일들입니다.



▶ 그림7. 미국 전 코칭 대표 고 이성권 목사님과 사모, 그리고 석정문 목사 부부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

『말의 품격』

글쓴이 : 이창배 선교사(우크라이나)



저자 손현보 | 쌤앤파커스 출판 | 2008
페이지수 285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훈련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지 자신의 말만 상대방에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기에 대화가 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을 본다. 남의 말을 들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한 이유는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찬하를 얻지 못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다. 삼국지연의에서 천하의 덕장으로 묘사된 유비는 덕으로 주변의 많은 인재를 불러들였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척자로 제갈량을 부를 때도 3번이나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유비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덕이었던 것이다.

21세기 버전 덕장으로 꼽히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있는데 정치전문가들은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포용력과 친화력을 꼽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 동양인 한 청년이 이민자 추방 중단이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다. 오바마는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을 존중했다.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신문은 이런 오바마의 품격을 이렇게 기사화 했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오바마가 가진 리더십의 원천이라고 말이다.

연설을 듣고 있는 아파와 어린 소녀의 대화 속에서 딸이 아파에게 한 질문이 귀에 들렸다. ‘존중의 뉘냐’는 딸의 질문에 아파는 존중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다.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 넣는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거야.” 옛말에 이청득심(以聽得心)은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청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은 그 사람이 나의 말에 경청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때인 것이다. 화려한 화술로 상대방을 감동시킨다고 할지라도 대화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의 대화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청해야 하는 것이다.

경청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사례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 이순신이다. 난중일기를 쓴 이순신에게는 ‘운주당’이라는 서재가 있어 참모들과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곳에서 일어났다. 그곳 지형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지형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전쟁을 준비했다. 수많은 왜구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청의 결과였다. 만약 이순신이 지역 사람들이 준 지역 주변에 대한 정보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 했다면 왜구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의 선지자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라 경고했다. 성경에서 혀의 권세는 언어의 영향력 말의 힘 언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잠18:21에는 “생명과 죽음이 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말이 생명이나 죽음의 결과를 가져다 줄 만큼 큰 영향

력을 주기에 크리스천은 언어 사용에 신중해야 하고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남의 말을 다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일대일 코칭 강의도 피코치와 코치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려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 그럴 때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말의 품격이란 책을 읽으면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특히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말을 전하는 일에 익숙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나를 반성하게 된다.

